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시 떨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군들인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는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이 세상 마귀가 가루도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귀와 싸워서 이겼으므로 여러분의 '이겼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으로서 이기면 다시 떨어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인간의 탈을 벗는 순서는 승리자가 된 다음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탈입니다. 마귀의 탈을 그대로 입은 채 구원 얻을 마음을 먹으면 안됩니다. 긴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그대로 나가면 이루어질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승리자가 된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이겼다'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자가 된 후에 다시 죄인으로 떨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된 다음 떨어지면 3년 이상의 투쟁 가운데서 이겨야 승리자가 되지 바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죽이는 기도(말마경)를 쉬지 않고 해야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귀와 더불어 투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는 차원이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사람으로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떨어지면 3년 이상 투쟁을 해서 다시 '이겼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떨어짐이 없이 나아가갈 때에 '또 이겼다'가 되면서 그 다음에 완성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성자가 되면 다시는 떨어질 수가 없고 다시는 인간의 위치에 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자가 된 다음부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차차 없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굳어지면서 완성자가 되면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면 영원무궁토록 사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명만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완성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완성자가 빨리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완성자나 하면 영생의 확신이 마음 밑바닥에 꼭 깔려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영생의 확신이 있고 또한 영생의 희망에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희망에 불타는 사람의 눈동자는 다릅니다. 이 사람 눈동자를 보고 무섭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1분도 못 바라보고 눈길을 돌립니다. 이 사람 눈동자는 불같이 불어 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면 자신 속에 있는 마귀가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와 같이 똑같이 되어야 구원이 지 구세주와 다른 구원과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

도를 완성한 자는 매순간 영생의 확신을 갖는 자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예배를 보아야 영생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영생의 확신도 되는 것입니다. 풍과 같은 더러운 심령 위에는 은혜가 절대로 안 내립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귀 죽이는 기도를 알려주는 구세주 조희성님

분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이 깔려 있어야 되고 또한 영생의 희망이 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희망이 있는 사람의 눈동자는 세상 사람의 눈동자와 다릅니다. 선하게 보이려고 눈을 지긋이 감은 듯한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죽이는 심정상태가 선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죽이는 마음상태는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권세 잡은 마귀가 근접을 못합니다. 또한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눈동자가 바로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에 차 있는 사람의 눈동자는 보통사람(죄인)들이 볼 때에 무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죽이는 눈

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구세주의 눈동자로부터 비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자신 속에 있는 마귀도 죽고 온 세상 마귀도 죽는 것입니다.

마귀 죽이는 기도(말마경)를 쉬지 않고 해야

그러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매달려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량대수 마귀 일초동안에 / 무량대수 횡수로 /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 똥방 뿌리째 뽑아서 /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하여 / 성령의 도끼로 짓이겨서 / 성령의 맷돌로 갈아서 / 성령의 불로 태워서 / 유황불로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기

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구세주의 눈동자로부터 비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자신 속에 있는 마귀도 죽고 온 세상 마귀도 죽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어떤 사람은 이 기도(말마경)를 할 때에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마귀하고 자신의 생명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귀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빨리 자기 생명과 떼어 놓아야 됩니다. 마귀는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나'라는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마귀를 항상 떼어 놓고 마귀를 전멸시키는 그러한 천군천사의 입장이 되어서 마귀를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이 보통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상 마귀를 죽이는 그러한 천군천사, 하늘나라의 병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는 병정들이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전부 천군천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사들이고 천군입니다.

승리제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삼천년성'

천년성은 영모님의 몸입니다. 영모님이 하나님의 신을 모셨죠. 그것이 바로 천년성입니다. 영모님의 몸이 천년성이지 전도관과 신앙촌이 천년성이 아닙니다. 이 천년성은 해와 이긴자의 몸입니다. 해와 이긴자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천년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 이긴자가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아담 이긴자의 몸이 삼천년성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담 이긴자가 예배 인도하는 이 승리제단이 삼천년성입니다. 아담 이긴자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고 삼천년성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천년성 안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만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년성 안에서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바로 하늘나라의 천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군이라는 입장을 생각해 항상 기도문을 외우고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제단 식구들이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성자의 영을 부여 주고 있기 때문에 완성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마귀가 죽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말씀 중에서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잠언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를 고대 이스라엘 모세 시대(BC1527~BC1406)에는 언약책이라 불렀다. 즉 언약책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한 모든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그 말씀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임무를 맡은 지파가 모세와 형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였다.

아마도 그 말씀 속에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창세기 내용, 하나님의 이사 기적, 출애굽의 과정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십계명으로부터 각종 제사 규정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들어 있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지키고 백성들이 잘못 되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벌이 내려지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살아야 한다는 신앙심이 생활화 되고 천군민족임을 자각하고 강인한 선민사상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단지파의 동북방 이동은 하나님의 섭리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단지파 장수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총괄 지휘하였다. 삼손이 죽은 이후 단지파는 동북방으로 이동하면서 제사장 지

파인 레위지파의 한 소년을 강제로 대동하여 천손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여 왔다. 고조선선을 세운 단군왕검이후 제정일치시대가 되면서 임금이 곧 사사로서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하늘에 제사지내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와당에서는 옛 조상들이 그랬듯이 '사사가 통치한 민족'이라 기록하고 있다. 사사 삼손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제각각 자기의 기업 터전을 찾아 흩어졌는데 단지파 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11지파의 형제들을 두고 동북방으로 홀로 떠나게 되었다. 나머지 11지파는 대부분은 이스라엘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에 의해 고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며 통치

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 주변강국에 지배되어 흩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마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민족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2천년 만에 세계도처에 흩어져 있던

단군민족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문자의 와당②

(국립중앙박물관 소재)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 시대 : 고조선
- 출토 지역 : 평양 대동강 유역
- 전시실 : 국립중앙박물관 아우치 이사오 기증 유물전시실
- 고대 히브리어 문양의 뜻 :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 해설자 : 고 신사훈 박사 (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히브리어 전문가)

히브리어 해설

<left side of the coin>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right side of the coin>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기록된 와당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단일민족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였다. 그들의 정신은 이스라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기독교화 되어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 풍속은 변질되고, 그들의 외모는 황인종 고유의 검은 머리 얼굴이 아니라 백인과 흑인과 혼혈민족이 되어버렸다. 순수 이스라엘 고유의 혈통은 우리

한민족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파 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동북방으로 이동하여 일타이 산맥을 넘어 몽고 만주를 거쳐 대동강 유역에서 단

전파되어 동방의 동북민족이 되었음은 허무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흥분구주 사상이요, 천부경이며 각종 경전들이 나올 수 있었다.

가립토 문자 역시 조상들이 썼던 히브리어문자를 토대로 새로운 정음 38자가 창조되고 고조선 고유의 문자로서 천년제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후에 세종대왕 때에 한글 훈민정음 28자를 만드는 모체 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삼국유사에 윤거가 21일간 기도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듯이 단군민족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라는 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전통신앙이 있다.

성경 레위기서에는 각종 제천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형벌규범도 하나님의 제단에 경중에 따라 제물의 크기도 다르게 올렸다. 와당에서 보듯이 한민족은 천손민족으로서 지상천국의 하늘나라를 이루고자하는 것이 삶의 기본철학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도생활이 체질화 되어 있다. 크개는 국가로부터 작개는 마을 단위까지 단체로 제사와 기원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오늘날까지도 기복신앙이 생활화 되어 왔다.*

서복목/우리 역사 바로잡기 운동가